**HI-ARC**

**2020-2 HI-ARC 자율 스터디 활동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스터디명 | BOOK++ | | | | | |
| 학습일시 | 2020.11.01 | 진행차수 | 6 | 학습시간/장소 | | 30분/카카오톡 |
| 참석자 | 권예빈(서명) | 이주현(서명) | | | 박장성(서명) | |
| (서명) | (서명) | | | (서명) | |
| 구분 | 내용 | | | | | |
| 학습목표 | 어떻게 하면 hill graph를 통해 프로젝트의 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지 배운다.  프로젝트의 연장 조건을 알아본다.  마지막 시간이므로 conclusion을 통해shape up의 내용을 정리한다. | | | | | |
| 학습 방법  및  학습 내용 | 13. Show Progress - 과정이 드러나게끔.  이번 챕터에서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이는 좋은 도구가 소개되었다. 바로 hill graph이다.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걸 알 수 있다. 왼쪽에서 시작해서, 진행 정도에 따라, certainty에 따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운 scopes을 이용해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때, 전에 해본 것들, 쉽게 할수 있는 것들보다는 해보지 않았고, 막막하고, 두려운 것부터 시작한다. 마치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적은 후, details and background information을 덧붙이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must가 아닌 nice to haves들이 남는다 어떻게 처리할까? 답은 다음 챕터에 있다.  14. Decide When To Stop -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개발단계의, building단계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열심히 shape을 한 뒤에 pitching이라는 시험을 통과한 project이다. 수많은 tasks들을 해결했지만, 그럼에도 해야되는 일이 남은 시간을 넘어선다. 이때 다음 문장을 기억한다. Shipping on time means shipping something imperfect. 즉 완벽주의를 버리라는 말이다. 이 내용은 책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되기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로젝트를 연장해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간단하다. 일단 완성된 프로젝트를 처음에 생각했던 ideal model이 아니라 baseline, 앞에서 세웠던 boundaries에 비교를 한다. 마찬가지로 저자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원칙의 한 갈래일 뿐이다. 따라서 nice-to-haves들도 base한지 아니면 ideal한지 판단한다.  또한 project는 cycle을 늘리기도 한다.  1. 완료하지 못한 tasks들이 must be true must-haves여야 하고,  2. hill graph에서 downhill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if the conditions are met to consider extending the project, we still prefer to be disciplined and enforce the appetite. 웬만해서는 cycle을 지킨다. cycle 뒤 2주의 cool-down 기간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ool-down기간에 build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한다.  15. Move On - 계속 나아가라!  드디어 project가 끝났다. 과연 끝인 걸까? 고객들의 컴플레인과 버그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쯤되면 저자가 무슨 말을 할 지 예상이 간다. 맞다. let the storm pass, 폭풍은 가라앉는다, 고로 기다리란다. 여전히 현실적이다. 차분히 피드백들을 검토한다, shaping과 pitching단계에서 했던 설계대로 했는지 확인한다. 그렇게 했다면 된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피드백에는 yes라고 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그 피드백에 미래를 저당잡히게 된다. 정말 중요한 피드백은 다음 cycle로 넘기고, shaping을 거쳐 betting table에서 다른 제안들과 경쟁을 시킨다. | | | | | |
| 활동 후기 | shape up이 드디어 끝났다. 1주일에 3챕터씩, 총 5회차로 진행되었다. 스터디원들이 부족한 스터디장을 믿고 잘 따라와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작정 시작한 스터디여서 초반에는 형식도 잘 잡혀있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틀이 잡혔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진행형일 것이다.  챕터1부터 챕터15까지, 저자가 제시한 모든 방법들은 결국에는 한 아이디어로부터 파생된 갈래들일 뿐이다. 그 아이디어는 풀어 쓰자면, 자유롭게, 팀원들을 믿고, 완벽주의로부터 벗어나라! 정도일까? 이 내용은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앞으로 책을 고를 때 기준이 될만한 책이었다.  다음 책은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Made Easy\_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ic Puzzles이다. 기대된다. 이 스터디는 영어 원서 읽기인 만큼 알고리즘, 자료구조를 공부한다기 보다는 관련 문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독해에 익숙해지는 데 중점을 두고 스터디를 진행해야겠다. | | | | | |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을 모두 지켜주세요.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1차수 당 3매 이하로 작성해 주세요.
* 공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단순 나열은 지양해 주세요.
* 학습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기재해 주세요.
* 기타 공부한 자료는 별첨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 매주 작성한 활동 보고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 주세요.

(2주 이상 미 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글자 포인트는 10pt로 작성해주세요.